

언론 사람

07
2021
VOL.253



04 인터뷰 人+人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06 Newmedia of the World
허위조작정보 자동생산,
인간-기계 협업의 위협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과거의 언행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

22 미디어 이슈 진단
프레임 전쟁

Contents

2021 July

04

인터뷰 人+人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06

Newmedia of the World

허위조작정보 자동생산,
인간-기계 협업의 위협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과거의 언행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다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평화의 중고차

12

돋보기

법조문 세 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다

14

단어의 중력

침묵

16

책의 밀도

고슴도치의 증오와 사랑
서보 머그더의 「도어」

18

식물관찰자의 일기

이끼, 태양을 찾아 나선 식물 탐험대

20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22

미디어 이슈 진단

프레임 전쟁

23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7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Yarikarat <Rural Landscape>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올려 퍼진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배달음식 주문과 택배 이용이 필수가 된 코로나19 시대. 날로 쌓여만 가는 일회용품들을 볼 때면 그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사람 7월호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민간 공동위원장을 만나 어떻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또 언론  사람 7월호는 새로운 코너 <책의 밀도>, <식물관찰자의 일기>를 마련해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식물들이 들려주는 삶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어느덧 등줄기를 뜨겁게 달구는 태양빛이 느껴지는 7월입니다.

언론  사람 7월호에서 새로운 계절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할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Q ‘탄소중립’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생소한데요. ‘탄소중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을 논의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기후위기는 인구증가,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 산림파괴, 육식 위주의 식생활 등 인류의 삶이 온실기체를 더 많이 배출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온실기체가 발생해 지표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이로 인해 물 증발량이 변화하면서 공기와 해류의 순환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너무 덥거나 춥고, 비 또는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오지 않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겨났죠. 이런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요. 2019년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다 적극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아 ‘기후변화’ 대신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기후위기’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지구 온도 상승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오랜 기간 대기 중에 머무르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은 지구상 모든 동식물들의 멸종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인 것이죠.

Q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2015년 파리기후협정, 2018년 IPCC 특별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자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올해 4월까지 131개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지난해 10월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름처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사회 모든 분야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탄소중립위는 각 부처의 탄소중립 계획과 정책, 제도를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탄소중립위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Q 평소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며 아쉽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최근 기후위기 관련 기사의 댓글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 많은 독자들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지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등의 기사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매년 실시하는 국민환경인식조사를 보면 기후변화의 징후나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료의 경우 흔히 전기세, 즉 ‘세금’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한 전기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거든요.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해요. 무조건 전기요금은 올리면 안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보도 방식은 이제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탄소 배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문제와 탄소중립은 과학적 사실이나 경제학 개념이 많이 연관되다 보니 전문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설명하는 기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탄소중립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 모두 탄소중립이라는 의제가 매우 첨예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탄소중립위는 18명의 당연직 위원, 77명의 위촉직 위원, 2명의 공동위원장까지 총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인데요. 위원회 내부의 의사조율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들, 예컨대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산업계,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은 움직일 수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속히 달성할 수 있을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겠고요. 각자의 입장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고 논의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Q 2017년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 중요 의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위원장님께서 당시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탄소중립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A 탄소중립위 설립 전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정책참여단이 운영됐는데요. 탄소중립위에도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 직능별, 산업별, 세대별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균형 잡힌 정보를 얻고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비단 국민정책참여단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참여단에서 논의하는 주제와 의견들을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밥상에 둘러앉아 탄소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Q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에너지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 재생에너지 시설 관련 펀드 상품을 구입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직·간접적인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방법들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것도 중요함니다. 이미 선출된 대표자들에게는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나 재활용이 쉽게 만든 제품을 구입하는 것,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실천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한국은 화석연료 배출량 측면에서 인구·경제 규모에 비해 책임이 큰 나라입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기후변화학회 이사

Q 탄소중립위 공동위원장으로 꼭 실현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요?

A 2030년까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높여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로서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구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탄소발자국을 최소한으로 남기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자동생산,

인간-기계 협업의 위협

허위조작정보, 소위 가짜뉴스의 생산은 그간 인간의 몫이었다.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발화하고, 선동하고, 퍼뜨리는 일련의 행위는 인간 집단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치밀하게 수행됐다. 그것이 루머나 소문이라는 이름을 하건, 가짜뉴스라는 명패를 달건 인간 외의 행위자가 이 프로세스에 개입된 적은 역사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미 예상했듯, 허위조작정보 생산에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GPT-3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Language Model), 즉 기계다. 아직 그 심각성에 경고등이 켜진 수준은 아니지만, 속임수의 기법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점차 판명되고 있다. 단지 생산, 작성 수준에 그친다고 보면 오산이다.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갈 정도로 훨씬 정교해 지고 있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언어모델의 강점은 문장 생성 능력이다. GPT-3가 작성한 영국 가디언의 에세이(Op-Ed) 사례에서 보듯, 그 결과물을 인간이 분간하기란 더 이상 쉽지 않아졌다. 적절하게 제시된 '제안문(prompt)'만 있다면, 충분히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인간이 손수 작성한 적절한 제안문과 대량으로 학습된 인간의 지식 데이

터가 있었기에 기계의 능력 향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 조지타운대 CSET(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가 지난 5월 펴낸 보고서⁹⁾를 보면, 역으로 기계가 생산한 허위조작정보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능력의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수용자가 믿고 싶어 하는 짧지 않은 길이의 허위조작정보를 새로운 관점을 담아 인간의 개입 없이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케 됐다. 기존에 존재하는 기사를 재작성해서 가짜뉴스로 둔갑시키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연구진이 모두 GPT-3를 활용해 실험한 사례들이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방어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소위 스타일로메트리(Stylometry) 기반의 분류기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공통적 문체, 출처 인용 패턴 구조를 인식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Schuster, T., Schuster, R., Shah, D. J., & Barzilay, R. 2020). 대체로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이나 기계가 단독으로 작성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는데 꽤 괜찮은 성능을 발휘한다. 기계에 대한 기계적 대처방식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더 위협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주체가 존재한다. 바로 인간-



기계 협업 행위자다. 여태껏 우리가 간과해왔던 새로운 협업 주체의 탄생이 허위조작정보의 판별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기계 단독, 인간 단독을 넘은 조작행위자로서 인간-기계 협업은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만큼 위협적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CSET의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 연구자들은 언어모델에 이해가 깊은 인간과 GPT-3가 한 팀이 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중국 제재에 관한 메시지를 생성해냈다. 수용자들의 확증편향을 활용하기 위해 그들의 이념에 최적화된 내용들로 채웠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입장의

변화 여부를 측정했다. 그랬더니 인간-기계팀이 작성하고 선정한 메시지의 의도대로 설득당한 비율이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각각이 독립적인 방식으로 허위정보를 생산했던 때보다 인간과 기계가 협업했을 때의 위력이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인간과 기계가 여러 방식으로 협업해 생산하거나 선정한 결과를 걸러낼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스타일로메트리라는 통계기반의 기계적 접근법도 무력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 언어모델은 사용처에 대한 검증을 비교적 정밀하게 거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우려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적성국이 자체 컴퓨팅 역량과 기술 모델로 이러한 언어 모델을 개발해내게 된다면 실험실 모델이 아니라 무기로서 기능하게 되는 건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라는 초대형 언어모델을 선보였다.²⁾ 한글 작성 영역에서는 GPT-3를 넘어설 만큼 학습 데이터나 파라미터 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국내 한 대기업도 GPT-3를 넘어서는 언어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1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³⁾ 언어 노동의 자동화와 언어생성 기술의 종속화를 넘어서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다. 이로써 더 이상 허위조작정보의 기계 생산 위협이 영어권에 그치지 않게 됐다.

초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한 허위조작정보 생산이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인간-기계 협업모델의 위력이 알려진 이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은 연구되고 검토될 필요가 있다. 허위정보를 퍼뜨리려는 인간의 욕망이 인류사에서 자취를 감췄던 적은 없지 않은가. 기계로 파생된 위협보다 두 주체의 악마적 조우가 만들어낼 공상과학 같은 위험이 현실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건 진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1) <https://cset.georgetown.edu/publication/truth-lies-and-automation/>

2) <https://naver-ai-now.kr/>

3)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73217/>

<참고문헌>

* Ben Buchanan, Andrew Lohn, Micah Musser, and Katerina Sedova, "Truth, Lies, and Automation: How Language Models Could Change Disinformation"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May 2021). doi: 10.51593/2021CA003

* Schuster, T., Schuster, R., Shah, D. J., & Barzilay, R. (2020). The limitations of stylometry for detecting machine-generated fake news. *Computational Linguistics*, 46(2), 499-510.



영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즐긴다. 스포츠란 대개의 영국인들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단지 보는 것뿐 아니라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한다. 만 네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그때부터 최소한 한 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접하게 된다. 방과 후 커리큘럼으로 다른 종목을 배울 수 있다.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주말에 운동할 수 있는 동네 클럽에 가입하기도 한다. 학업보다도 스포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줄 정도다. 어려서부터 시작한 운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취미활동으로 이어진다. 물론 두각을 나타내면 프로 선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영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는 축구, 럭비, 크리켓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크리켓은 공과 방망이를 가지고 하는 스포츠인데, 프로 야구가 없고 일반인들도 야구를 하지 않는 영국에서 매우 인기가 높다. 여름철 주말이면 근처의 필드에서 아마추어들이 하얀 옷을 갖춰 입고 경기하는 걸 볼 수 있다. 생활 스포츠로도 인기가 높지만 프로 리그도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만 열여덟 개의 프로 팀이 있을 정도다.

다만 크리켓은 사립학교 출신, 중류층 이상의 백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켓을 가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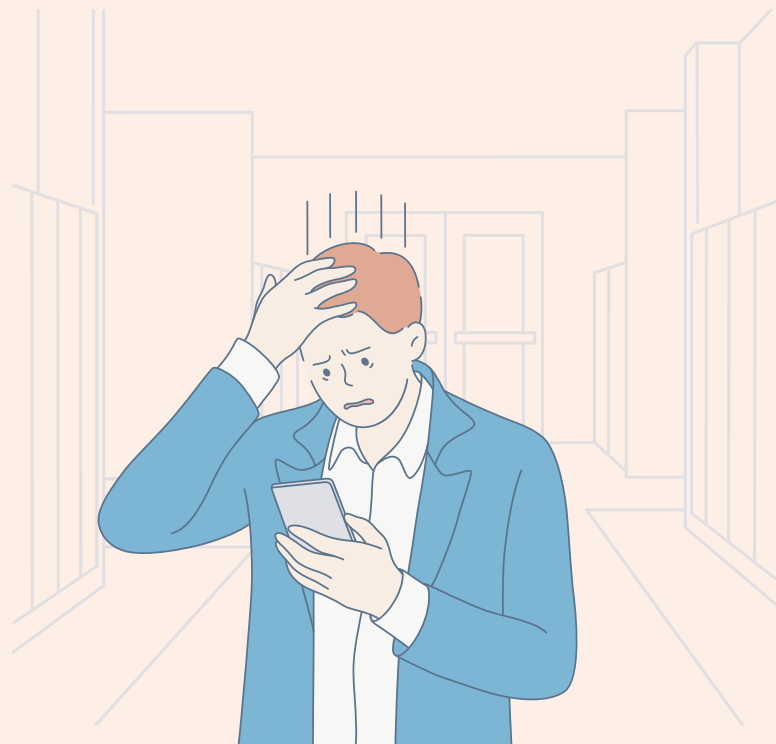
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층 아이들은 크리켓을 직접 해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또 유색인종 선수가 크리켓 프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인 경쟁자와 같은 수준이어서는 안 되고 더 뛰어나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명색이 영국의 국기에 해당하는 스포츠임에도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흑인 등 유색인종 청소년들이 크리켓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총괄하는 크리켓 감독 기구인 ECB(England and Wales Cricket Board)는 차별적인 요소를 줄이고 크리켓을 보다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 스포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만 약재가 터졌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올리 로빈슨이 작성한 인종주의적이고 여성혐오적인 트윗이 폭로된 것이다.

현재 27세인 로빈슨은 20세에 프로 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해 작년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되었고 지난 6월 초 세계 랭킹 1위인 뉴질랜드를 상대로 한 국제 경기에 데뷔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그가 10년 전에 쓴 차별적인 트윗들이 폭로되었다. 로빈슨은 즉시 사과를 했으나 ECB는 그를 선발 선수에서 배제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즉 조사가 끝나고 적절한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처분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목소리가 뜨겁고 각 매체는 그런 발언들을 인용하며 이 사안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크리켓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한 스포츠이므로 대중의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는 행동의 기준도 높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행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줘야만 한다는 점 등을 들어 ECB의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문화스포츠 장관은 비록 로빈슨의 트윗 내용이 공격적이고 잘못된 것이지만 10년 전 일이고 십대 시절에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가 사과까지 한 이상 ECB의 조치는 과도한 것이며 재고되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총리 역시 이 의견에 동조를 표했고 영국의 대표적 일간지 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집권 보수당 정치인 및 보수 언론의 반응에 대한 비난 역시 등장했다. 늘 그래왔듯 차별적 발언을 한 중산층 백인 남성에게는 감정이입하거나 동정하면서도 정작 차별적 발언을 늘 들어왔고 들어야만 하는 유색인종이나 여성들의 감정 또는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이미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발언이 다시 조명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고 현재의 평판 내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로빈슨의 불운을 동정하며 사람이란 변하는 것인데 10년 전 철없던 시절의 발언으로 전도유망한 스포츠 선수의 장래를 망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니면 차별적인 사고방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이고 17, 18세라면 어린 아이도 아니며 많은 소수자들을 생각할 때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의 의견을 지지할 것인지 잠시 스스로 생각해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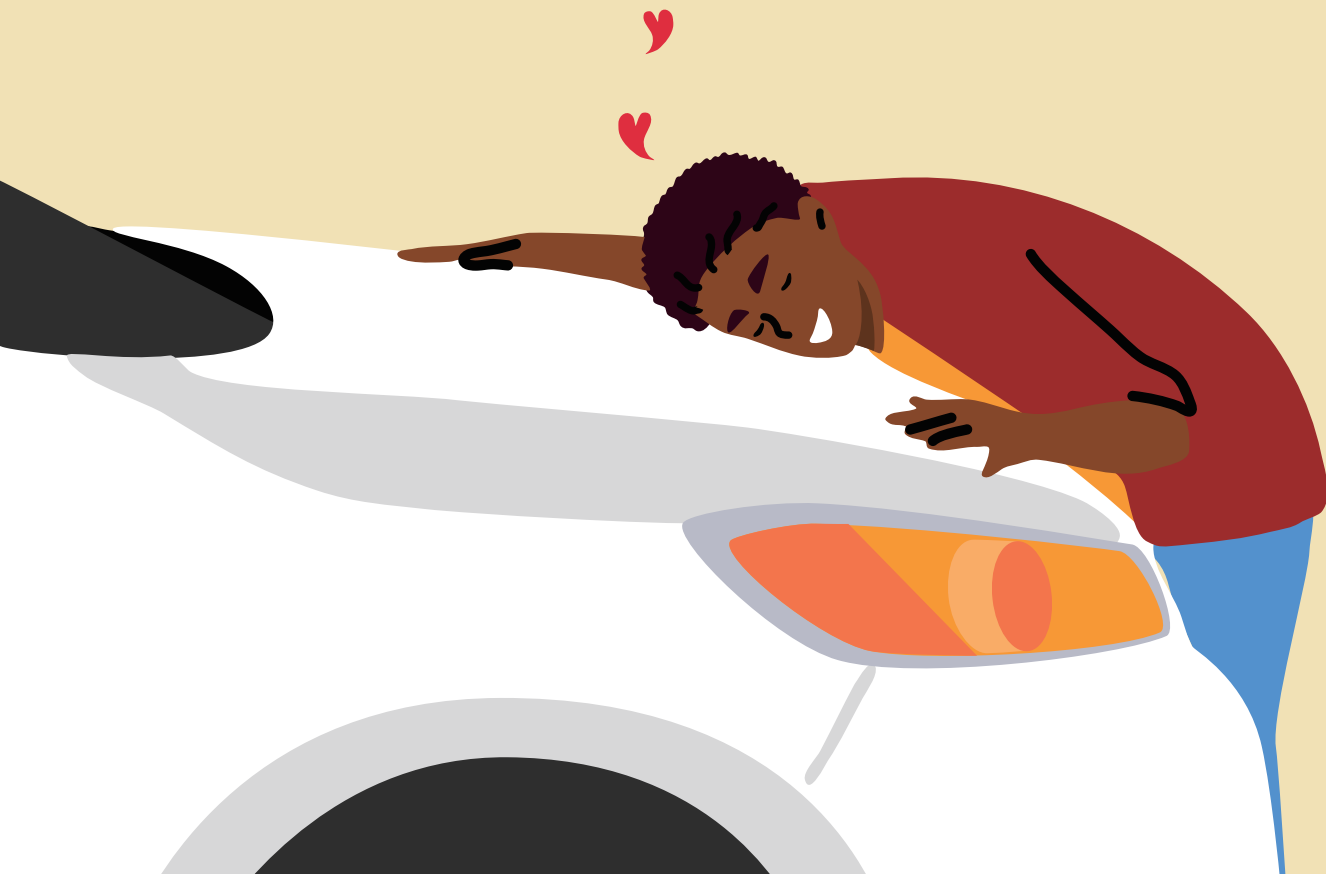
다만 분명한 것은 점점 온(on)-오프(off)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의 역사가 길어지고 많은 사람이 이를 활용하게 되면서,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이 누구에게나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바람직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스스로의 언행을 늘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일 터이다.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 발언에 영향을 받을 사람을 면전에 두고 하지 못할 말은 온라인에서도 하면 안 된다. 이를 유념한다면 훨씬 쾌적할뿐더러 본인 스스로에게도 궁극적으로 안전한 온라인 생활이 될 것이다.



평화의 종고차

저는 **취재지에서 운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느 나라건 공항에 내리면 취재 차량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취재 장비를 운반해야 하고 무엇보다 저의 신변 문제상 안전한 취재 차량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이야 인터넷으로 다 예약이 되고 공항마다 렌터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3세계를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음알음 인맥을 통해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 운전하는 기술적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같은 운전이죠. 그런 나라는 주차 개념도 거의 없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주차하면 됩니다. 사막이나 개활지가 많아 교통체증도 거의 없습니다. 차량 운전이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바그다드나 테헤란, 카이로 이런 대도시는 교통지옥이긴 합니다만 그거야 뭐 어쨌든 기본적인 운전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이슬람권 국가에서 여성인 제가 운전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 신기한 일입니다. 사우디나 아프간 같이 여자가 운전을 할 수 없게 법으로 되어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제가 운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아랍 국가들에서도 여성 운전이 흔하진 않지만 아주 금



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길거리로 나가면 다들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아 저 외국 여자도 운전을 하는구나.’ 이런 표정입니다. 차만 좋으면 대학 때부터 익힌 스피드까지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취재비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늘 싼 차를 구하다보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슬람권 나라들은 제가 주유소에 가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줄이 서 있어도 저에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넣으라고 양보해줍니다. 가끔 현지 운전사를 고용하는데 기름 넣을 때만 저에게 운전대를 양보합니다. 여자니까 빨리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운전하는 모습을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신기하게 봅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신기하게 봅니다. 피차일반입니다.

이라크에서 주로 고용하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운전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저를 태우고 다니려 노력합니다. 그는 의리도 있고 저를 태우고 다니는 것에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운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엄청 독실한 이슬람 신자여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하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해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입니다. 그에게 운전에 관한 그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은 지라 그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저는 어지간하면 운전을 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여자는 보호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차를 타면 항상 코란암송 테이프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는 금요일에 모스크 가는 것은 죽어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는 ‘살라’라는 의식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촬영도 완전 스톱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의 종교를 존중했고 그도 가톨릭 신자인 저의 종교를 존중해주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후 한국 중고차가 물밀듯이 이라크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중고차는 마일리지도 적고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왼쪽 운전이라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운전기사는 그동안 저와 일한 돈을 모두 모아 한국 중고차를 샀다고 했습

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집에 초대해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 차를 살 수 있는 것은 그의 집에 엄청난 경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자인 저를 초청해서 그 자리를 빛내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초청한 날이 왔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니 때문에 꽃도 걸려 있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그가 새로 산 차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새 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보는 봉고차였는데 그 차에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크게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쓰던 승합차가 이라크로 팔려왔던 모양입니다. 아...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 이 운전기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 차에 쓰여 있는 한국말이 무엇입니까?”라고요. 차마 그대로 직역은 못하겠던 저는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가족들이 평화롭기를’이라고 써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역은 아니고 의역 아닙니까? 종교는 달라도 결국 가족의 평화를 말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 독실한 이슬람 신자인 운전기사가 차 샀다고 들었는데 이 차가 기독교 교리를 옆에 써 놓은 차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의역한 말을 듣고 운전기사는 아주 거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알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운전기사는 이 차를 무려 10년을 타고 다른 차로 갈아탔습니다. 가끔 메신저나 이메일로 그 교회 봉고차 옆에서 아이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 친구 마음이 편하고 그의 가족들도 그 차와 추억을 많이 가졌으니 종교가 달라도 ‘가족이 평화’라는 최종 목적은 달성한 것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라크 바그다드 가시는 분들 중에 봉고차 옆에 주예수를 믿으라고 빨간 글씨가 쓰인 차를 보시더라도 부디 직역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친구와 이라크 사람들이 영원히 그 사실을 모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종교건 평화를 비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법조문 세 가지로 나라를 다스리다

與父老約,

여부로약

法三章耳.

법삼장이

—
어르신들과 약속할 것은, 법조문 세 가지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고조본기》에 나오는 구절이다. 한고조 유방은 천하의 패권을 놓고 항우와 다투었다. 기원전 206년에 유방이 먼저 진(秦)나라 수도인 함양(咸陽)에 입성했고 진나라 제3대 황제인 자영(子嬰)의 항복을 받았다. 함양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던 유방은 변괘와 장량의 간언으로 함양성을 나와 패상(霸王)으로 철수했고, 진나라의 노인들을 초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로했다.

어르신들께서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고생하신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비



방하는 사람들은 멸족을 당했고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자거리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제가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자가 왕이 되기로 했으니 제가 장차 관중의 왕이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약속할 것은 법조문 세 가지뿐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자와 도둑질한 자는 죄에 맞게 처벌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는 모두 진나라의 법을 폐지하여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다 예전처럼 편안히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악을 없애려는 것이지 침략하고 포박한 짓을 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父老苦秦苛法, 久矣. 誹謗者族, 偶語者棄市. 吾與諸侯約, 先入關者王之, 吾當王關中. 與父老約, 法三章耳. 殺人者死, 傷人及盜抵罪. 餘悉除去秦法, 諸吏人皆案堵如故. 凡吾所以來, 爲父老除害, 非有所侵暴, 無恐.)

족(族) :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부모, 형제, 처자 등 그 친족에게까지 미치던 형벌이다.

기시(棄市) :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죄인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길 거리에 버리던 형벌이다.

관중(關中) : 함곡관(函谷關) 서쪽의 진(秦)나라 지역을 이르던 말이다.

안도(案堵) : '편안하게 막아 주는 담장'이라는 의미의 '안도(安堵)'와 같은 단어로, 여기에서 '편안히 지내다', '마음을 놓다'의 뜻이 나왔다.

진나라는 상앙이 주장한 법가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 가혹한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부국강병을 이뤘다. 그러나 그 폐단은 천하를 통일한 뒤 3대 만에 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유방은 진나라를 무너뜨린 뒤에 악법의 공포에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해 주고 싶었다. 그 제1성이 바로 위의 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약법삼장(約法三章)'이다. 살인, 상해, 절도에 대한 처벌 이외에는 모든 악법을 없애겠다는 약속이다. 정치의 요체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그 근원은 <<서경(書經)>>에서 이미 법 운용의 원칙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으니 다음과 같다.

臨下以簡, 아랫사람을 대하기를 간략함으로 하시고

御衆以寬. 대중을 다스리기를 관대함으로 하셨습니다.

罰弗及嗣, 벌은 자식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賞延于世, 상은 대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宥過無大, 실수로 지은 죄는 아무리 커도 용서하시고

刑故無小, 고의로 지은 죄는 아무리 작아도 처벌하셨습니다.

罪疑惟輕,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벼운 쪽으로 벌을 주시고

功疑惟重. 공이 의심스러운 것은 무거운 쪽으로 상을 주셨습니다.

與其殺不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寧失不經. 차라리 법대로 하지 못하는 실수가 낫다고 하셨습니다.

«서경·대우모(大禹謨)»

순임금의 조정에서, 지금의 법무부 장관격인 사(士)라는 벼슬을 맡고 있던 고요(皋陶)가 순임금의 다스림을 칭송한 내용이다. 또한 자신도 법을 집행하면서 이런 자세를 모델로 삼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다섯 문장의 열 구절 모두 지금의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금과옥조들이다.

첫 문장은 총론으로 지도자와 뒷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간략함은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고, 관대함은 넓은 포용력이다.

다음의 네 가지는 각론으로, 첫째, 멸족의 형벌을 경계했다. 유방도 진나라의 악법 중에 맨 먼저 멸족의 형벌을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좌제라는 형벌을 시행한 것이 최근까지의 일이다. 그런 악법을 없앤 것이 늦게나마 다행이다.

둘째, 정상 참작의 원칙을 제시했다. 큰 잘못이라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용서하고 작은 잘못이라도 고의로 저지른 것이면 처벌한다고 했다. 형량의 결정에 정상 참작의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셋째, 판결의 주의점을 제시했다. 요즘의 범죄 수사에서도 문제가 되는 심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대한 배려를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을 경계했다. 한 명의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는 것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는 것이 낫다는 마음이다.

이미 사천년 전에 법운용의 이상적인 원칙이 확립된 것이 놀랍다. 이런 지도자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하고 조심하여 양심을 간직할 것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요즘을 가지가지의 법과 규정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입법 과잉을 넘어서 입법 폭증의 시대이다. 이런 상황을 돌이키는 방법은 유방이 약속한 것과 같이 지도자가 법의 의미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명심할 일이다. 그들이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거나 주관적 판단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선진 국가, 정의 사회를 이루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다.

침묵



페레 포르타벨라 감독의 영화 <바흐 이전의 침묵>은 1분 30초 동안의 무음으로 시작된다. 별거 아니잖아, 하고 생각해버리면 곤란하다. 방음장치가 잘된 영화관에 못처럼 박혀 있는, 그것도 영화의 스토리를 따라가던 중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막하게 기다리는 1분 30초에는 굉장한 박력과 무게가 있다. 그 침묵을 깨고 마침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제1번 아리아가 흘러나오면, 물속에 잠겨 있다 올라온 사람처럼 급한 숨이 절로 따라 흐른다.

언젠가 너는 반지하에 있는 방에서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다. '반지하'라는 말이 너는 좀 이상했다. '반지상'이라 해도 좋을 텐데. 어쨌든 반지하란 말 그대로 반은 지하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번듯하다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좁고 길쭉한 창이 천정과 맞닿아 붙어 있는데, 그 창을 활짝 열어두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이쪽에서는 손이 겨우 닿는 높은 창이지만, 밖에서 보면 발치에 붙어 있는 창이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창을 열어둔다 해도 쓸 만한 풍경이 어른거리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투명



스럽고 무뚝뚝한 발들이 바쁘게 스쳐갈 뿐이다.

그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인색하다. 가난한 자취생을 위한 집이 남쪽을 향해 우뚝 서 있을 리는 없으므로, 아침이 되어도 햇빛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침은 밤 같고, 밤은 제대로 된 밤 같지 않다. 모처럼의 휴일, 외출 계획이 없다면 하루 스물네 시간을 어설픈 밤의 왕국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5층 건물의 3층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손바닥만 한 창 너머로 하늘이 보인다는 게 너는 무척이나 신기했다. 그때가 처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빛이 소리를 낸다는 것을 네가 깨달은 것은 밤이 지나고 어느 먼 동쪽 하늘에서 솟아오른 해의 온기가 천천히 대기 속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너의 작은 창에 이르러, 보드랍고 보송보송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날 너는 썼다. 한 줄기의 빛이 아침의 소리를 낸다, 라고. 빛이 없는 아침은 무음(無音), 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음(死音), 음이 죽은 상태. 작

은 날개를 퍼덕이며 열심히 날아온 새의 가녀린 노래를, 영원과 같은 밤을 견디고 막 봉오리를 펴 올린 꽃의 수줍은 인사를, 빛이 없는 아침은 일말의 망설임도 관대함도 없이 삼켜버린다. 하지만 커다란 창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 해서 그것으로 너의 아침이 틀림없이 시작된다는 보장은 없다. 빛은 무한하지만, 그 빛을 감지하는 것은 네 속의 빛일지도 모른다.

빛이 소리를 내는 것이라면, 또한 네 속의 빛이 자연의 빛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네가 내는 소리는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 뒤에 너는 물음표 하나를 달아두었다.

너는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같은 말들은 너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나, 하고 살아왔다. 야망이란 뭔가 번잡해 보이고 그런 걸 이루겠다고 설치다가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줄 것 같아서 감히 품고 싶지 않다.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가를 알아버리자 욕심도 덧없이 느껴졌다. 그러나 한 가지, 날이 갈수록 조금 더 원하게 된 것이 있다면, 허겁지겁 시작하는 아침을 맞지 않는 것이다.

오전 스케줄은 가능하면 만들지 않는다. 후다닥 뛰쳐나가서 처리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도 따지고 보면 별로 없다. 오전에 오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너를 아는 사람들은 오전에 전화하는 일이 없고 카드회사의 홍보전화 정도는 가볍게 외면할 수 있다. 침대에서 기어 나와 창을 열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화분에 물을 주는 일, 천천히 차가운 물 한 컵을 다 마시는 일, 사과 한 알을 껍질째 깨물어 먹는 일, 욕조 속에 들어가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일, 그것만으로 오전이 지나간다. 그렇게 느긋하게 어슬렁거리며 머릿속으로 오늘의 할 일을 떠올린다. 몇 가지 생각들, 몇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상상하게 파닥이는 것들을 붙잡아 손에 닿는 노트에 옮겨둔다. 그 사이에 수많은 소리들이 밤을 밀쳐낸다.

이렇게면 커피가 끓는 소리, 목마른 화초들이 마음껏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 창밖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욕조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 한껏 물이 오른 사과가 아삭, 하며 치아 사이에서 부서지는 소리, 브람스 또는 슈베르트의 피아노와 첼로 소리, 그 위로 빛의 소리가 쏟아진다. 너는 빛에 반응할 준비를 마치고 머리카락의 물기를 닦아내며 모니터 앞에 앉는다.

그리고 너는 쓴다. '나는 빛의 소리를 쓴다'라고. 너는 침묵,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또는 그런 상태'이고 네 주위는 침묵, '정적이 흐름 또는 그런 상태'이다. 침묵, 잠길 침(沈), 잠잠할 묵(默) 안에서 빛의 소리를 듣는다. 바흐 이전이 아닌 이후의 침묵, 지하가 아닌 지상의 침묵, 어둠이 아닌 빛의 침묵 속에서 빛의 노래를 빛는다.



John Walters(1721-1797)
 Mrs Jane Ebreil (b.1706), Former Housemaid and 'spider-busher', aged 87



고슴도치의 증오와 사랑 서보 머그더의 「도어」

이것은 사랑 이야기다. 40대 중반의 나 같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의 사랑. 독자는 늘 책에서 얻은 진실처럼 느껴지는 것을 책 바깥 생활에서 확인하고 싶어 한다. 서보 머그더의 『도어』를 읽으며 내가 그랬다.

『도어』에는 작가인 ‘나’와 우리 집 살림을 맡은 에메렌츠가 등장해 책 전체를 긴장감으로 채운다. ‘나’는 늘 원고 마감을 해야 하기에 집안일에 신경 쓸 수 없다. 다행히 에메렌츠는 책이라면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녀는 세상을 청소해야 할 먼지와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 곳으로만 인식한다. 에메렌츠를 고용한 ‘내’가 불만인 것은 그녀가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녀는 주인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그 집 일을 하며, “더러

운 속옷은 빨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다. 또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사람은 자신이어야 한다. 빨랫감이 쌓여 있는데도 며칠간 안 오고, 어떤 때는 한 밤중에 들어와 부엌이며 빨래를 해 신경을 건드린다.

책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도어』의 주인공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 고전에 밝고, 치밀한 문장을 쓰며, 감정을 다루는 솜씨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때로 잘 쓴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그 삶의 정당성을 얻는다. “에메렌츠는 죽음 이후 셀 수 없을 정도로 소리 없이 … 우리의 죄의식에, 혹은 그녀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도에 대해 주먹감자를 먹었다.”

작가 '나'는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는 따뜻한 면모도 지녔고, 폐암 초기의 남편을 돌보며, 독자 행사에도 몸 사리지 않고 함께함으로써 자기 안락에 시간을 쏟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쩌면 '나'의 시간들은 '세상'을 위해 쓴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걸레를 손에 들지 않고, 독실한 천주교도라지만 이웃을 돌보는 데 쓸 시간 따위는 없다.

에메렌츠는 분리수거일에 쓸 만한 물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뒤지며 폐품을 주워오는 노인이기도 하다. 교회에 발길 한번 들이지 않는 차가운 비신도이며, 저주도 서슴지 않는 못된 말투를 가지고 있다. 눈빛은 더 나쁘다. 사람을 죽일 것처럼 증오를 언뜻 내비친다. 요즘은 모두 앱을 통해 도우미를 구하니, 이런 사람은 단번에 컴플레인을 받을 유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직접 청소하지 않으면서 돈 몇 푼 주는 이용자라는 명목하에 마음에 안 들면 별점으로 낙인찍어 다시는 그가 플랫폼에 발 못 붙이도록 하는 잔인한 인종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에메렌츠는 모든 약한 것의 대모를 자처하며 독자가 그녀를 함부로 생각할 수 없게 한다.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보양식을 해먹이고, 버려진 동물들을 거두어 길거리 인생을 살지 않게 한다.

이 책의 묘한 부분은 그런 에메렌츠와 '나'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처럼 읽힌다는 것이다. 에메렌츠는 걸레질하지 않는 주인을 경멸하지만, 남에게 결코 열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세계에 '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다. 작품의 제목이 말하듯 주인인 그녀에게만 허락된 '도어(문)'다. 에메렌츠는 육체가 바스라지도록 모든 에너지를 타인에게 내어준다. '나'는 에메렌츠 없이는 잡동사니 가운데서 뒹굴어야 할 만큼 삶을 의탁하고, 점점 그녀가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없게 된다. 에메렌츠는 '나'의 생애에 깊숙이 들어왔다.

이 책은 '부끄러움'에 관한 이야기다. 인텔리틱인 것들에 대해 에메렌츠가 보여주는 증오의 언어는 놀랍다. 그녀는 독자에게 기꺼이 벌주고자 한다. 걸레질과 비질을 하지 않는 너희는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말라고. 책을 읽는 내내 70대 중반의 서씨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그녀는 7년간 우리 집 청소를 해주신 분이다. 처음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집의 구조 등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점검하면서 평가하는 말을 했다. 나는 위화감이 들었지만 일

을 맡기기로 한 이상 무엇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 나는 부끄럽게도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며, 육체노동에 켄병이어서 누군가로부터 경멸받아 마땅한 인간이기도 하다. '분업이 효율성이 높다'는 구식 테일러주의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식으로 도우미를 전문직종으로 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먼지를 직접 닦지 않는다.

나는 서씨 아주머니가 주방 유리에 환찰해놓은 것처럼 걸레 자국을 남기는 게 싫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번은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내뱉는 걸 들었다. "나한테 한 번만 더 잔소리하면 아가리를 찢어놓을 거야." 다른 이와 의 언쟁 끝에 나온 말이지만 그걸 듣는 순간 나락으로 추락

하는 느낌이었다. 문자에만 둘러싸여 사는 이들은 늘 한구석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 "비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돌봄노동을 맡기는 것에 대하여, 육체노동 하는 이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하여, 햇볕에 그을리지 않아 기미 없는 피부로 사회적 차별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거두어 먹이는 자와 보살핌을 받는 자는 불균형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보살핌을 받는 이가 필연적으로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소

설에 등장하는 총경, 의사의 아내 모두 타인의 손길이 없으면 불행해질 약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밥할 줄 모르고, 누군가의 옷을 벗겨 그 몸을 씻길 줄도 모른다. 침대 바깥으로 꼼짝할 수 없는 아픈 이의 용변을 받아내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나 국가의 복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메렌츠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에메렌츠의 두 동생은 그녀 눈앞에서 번개를 맞아 땀처럼 타 죽었다. 무기력했던 엄마는 딸 앞에서 우물에 몸을 던졌는데, 두 눈 뜨고도 엄마를 구하지 못했다. 서씨 아주머니도 젊은 시절 홀로 돼 자녀들을 키우면서 청소일로 생계를 책임져왔다. 그 생애에는 그악스러움이 배어 있지만, 그것은 인연을 맺은 주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삶 속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역경의 흔적이다.

"애정은 온화하고 규정된 틀에 맞게, 또한 분명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그것을 밀도 높은 에메렌츠의 생으로 압축해서 보여준다.



William Henry Fox Talbot(1800-1877)
The Open Door

이끼, 태양을 찾아 나선 식물 탐험대



키 큰 암그루와 키 작은 수그루

내 책상 위에 작은 우산들

우산이끼를 생각하면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소각장이나 슬레이트 집 처마 아래 웅기종기 모여 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부분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자리나 음습하고 그늘진 곳에 애처롭게 있었죠. 이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우산이끼를 조사하려 찾아 나섰지만 막상 도시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시골로 내려가신 은사님의 집을 방문했는데 오래된 골목 구석에서 우산이끼를 발견할 수 있었죠. 우산이끼를 채집해 가려고 다시 은사님의 집에 갔을 때 저는 은사님이 우산이끼 주위로 양증맞은 울타리를 쳐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우산이끼를 저는 한 달 넘게 키우며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은사님의 마음처럼 넓고 깊은 이끼의 세계에 계속 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우산이끼를 통해 본 작은 세계

우산이끼라고 하면 흔히들 우산 모양을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어렵듯이 기억합니다. 우산이끼에는 두 종류의 우산, 즉 암그루와 수그루가 있는데요. 수그루에서는 정자를, 암그루에서는 난자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산살만 남은 것 같은 찢어진 우산과 찢어지지 않은 우산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도 가물가물하고, 두 우산 중 어느 우산이 암그루와 수그루인지 헷갈리기 일쑤지요. 키가 크고 찢어진 우산 밑에 키가 훨씬 작고 찢어지지 않은 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키 큰 우산에는 무언가 아래쪽에 매달려 있고, 키가 작은 우산은 위쪽 표면에 작은 구멍들이 송송 나 있죠. 그래서 왠지 키가 큰 우산이 수그루이고 아래쪽으로 정자가 떨어져 암그루로 여겨지는 키 작은 우산의 윗면에 도착할 것이라 추측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빗방울이 키 작은 수그루의 표면에 떨어지면 표면 구멍에서 정자가 빗방울과 함께 튕겨 나가 난자가 있는 키 큰 우산의 아래쪽으로 속 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수정이 되면 포자로 발달하는데 포자는 달걀 모양의 주머니(삭: 蒴) 안에서 때를 기다립니다. 우산 아래쪽에 매달려 보호받으며 자라나 부풀어 오른 주머니들은 완전히 성숙하면 터져서 노란 포자들을 땅 쪽으로 쏟아내는데요. 이때 신기한 것은 탄사(彈絲)라고 하는 사슬 모양으로 꼬여 있는 긴 구조들

이 포자와 함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탄사는 주머니를 터트리고 포자가 멀리 날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금색 구슬(포자)과 목걸이(탄사)가 잔뜩 있는 모양새죠. 게다가 수분 증발에 따라 풀어지는 탄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마치 움직이는 작은 동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산 외에 인사귀처럼 땅 위를 덮고 있는 초록색 부분을 살펴보면 표면에 작은 컵 모양 구조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 아주 작은 초록색 동전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바로 개체로 자라날 수 있는 무성아입니다. 빗물이 컵 안으로 떨어지면 동전들이 튕겨 나가 그대로 각각의 개체로 자라납니다. 모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클론들이죠.

양증맞지만 담대한 초록 생명들

우리는 작고 용단처럼 깔린 초록색 식물들을 통틀어 흔히 이끼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식물학에서는 선태식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선태식물에는 솔이끼가 속하는 선류, 우산이끼가 속하는 태류, 소수의 종이 속한 각태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끼(moss)라는 용어는 선류를 지칭합니다. 지구에는 약 2만종의 선태식물이 자라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850종 가량의 선태식물들이 곳곳에 있지요. 계통은 다르지만 우산이끼라고 이름 붙은 종류만 해도 윤기우산이끼, 털우산이끼, 아기패랭이우산이끼, 꽃잎우산이끼, 김삿갓우산이끼, 조개우산이끼 등 다양합니다.

선태식물은 공통적으로 씨앗 대신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물관과 체관 같은 관다발조직을 가지지 못했고, 잎과 줄기로 정확하게 분화하지 못한 원시적인 식물입니다. 줄기가 발달하지 못해 키가 매우 작죠. 뿌리 또한 물을 흡수하는 기능이 없고 그저 식물체를 땅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은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대개 습기가 있는 음습한 곳에 사는 경우가 많지요. 태초의 식물 조상들은 주로 물속에 있었는데 그런 원시적 특징들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잠시 살펴본 우산이끼에서도 알 수 있듯 종이 원시적이라고 해서 그 형태와 생태가 보잘것없고 단순한 것은 아니죠. 게다가 처음으로 진화를 통해 물 밖으로 나온 이 식물 탐험대는 보통 현명한

것이 아니었을 테니 말입니다. 무리 지어 기어가며 조금씩 육지를 점령해 갔을 초기 선태식물들을 상상해 볼까요. 물 밖으로 나온 작지만 용감한 식물은 압도적인 햇빛에 열광하고 수분에 목말라 현기증을 느끼면서도 지혜롭게 육지를 점령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온 선태식물

흙과 돌로 된 삭막한 육지에 처음으로 생긴 초록색 용단은 작은 동물에게 복잡하고 뻘뻘한 숲속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동물에게는 물속에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이 초록 생명들이 맛있는 먹이가 되었겠지요. 선태식물을 먹은 동물에는 인간도 포함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2017년 학계에 발표된 인간 DNA 연구는 벨기에 동굴에 사는 네안데르탈인은 육식이, 스페인 동굴에 사는 네안데르탈인은 채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채식주의자 네안데르탈인은 버섯과 잣 외에 이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선태식물을 충전재나 방한용, 연료나 포장용으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항생제 성질이 있는 종은 의약품, 유독한 화학물질을 가진 종은 살충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수분을 간직한 특징을 이용해 불을 끄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고, 건조한 이끼가 빠르게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 상처를 덮거나 기저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우수한 공기 정화 능력을 이용한 녹지화와 정원 소재로 그 능력이 검증되고 있지요.

자연을 바라보는 관찰자

저는 식물을 공부하면서도 편식하는 사람처럼 꽃과 열매를 맺는 식물(종자식물)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원시적인 식물들이끼와 고사리의 시대는 갔고 우리 인간과 함께 열심히 진화하고 있는 종자식물의 시대라고 막연히 생각하면서 말이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작고 보잘것없으며 원시적이라고 무심하게 지나쳤던 이끼는 또다시 제게 알려줍니다. 자연에 있어 대중 이루어진 것은 없음을 말이죠. 우리 모두 관찰자의 눈을 가지고 천천히 자연에 있는 모든 소우주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네안데르탈인의 이끼 섭식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21674>

위원회 뉴스

‘아동인권과 언론의 역할’ 주제로
언론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6월 17일 ‘아동인권과 언론의 역할’ 주제로 언론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아동학대와 아동인권 문제, 아동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 과제, 시정권고 및 조정사례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 보도에서의 법익 침해 예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영주 서울제6중재부 위원(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주용 심의팀장이 참여했다.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통권 제159호) 발간

위원회는 6월 30일 「언론중재」 2021년 여름호(통권 제159호)를 발간했다. <Focus on Media>에는 ‘사회적 위기 상황과 언론’을 주제로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기고가 수록됐다. 또 ‘코로나19 보도와 피해구제’ 관련 특별기고 및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 토론회 주요 내용도 담겼다.

2021. 7. 1.자 사무처 전보 인사

- 심의2팀장 임종우
- 부산사무소장 윤치경

Focus

위원회 조정사건 전년 동기 대비
235건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조정사건은 1,740건으로 지난해(1,505건) 같은 기간 대비 약 16%(235건) 증가했다. 위원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3,924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해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로 인한 대량신청 사건을 제외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 조정신청현황(1. 1. ~ 5. 31.)에 따르면 조정신청 대상매체는 인터넷신문 970건(55.7%), 인터넷뉴스서비스 260건(14.9%)으로 전체 신청사건의 약 70%가 인터넷 기반 매체에 집중됐다. 또 신청인 유형별로는 개인 984건(56.6%), 회사 348건(20.0%), 일반단체 182건(10.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속적인 조정사건 수 증가에 대처하고 인터넷매체로 인한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중재위원 증원 및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하는 등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위원회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되어 신속히 언론분쟁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 동정

정제훈 위원,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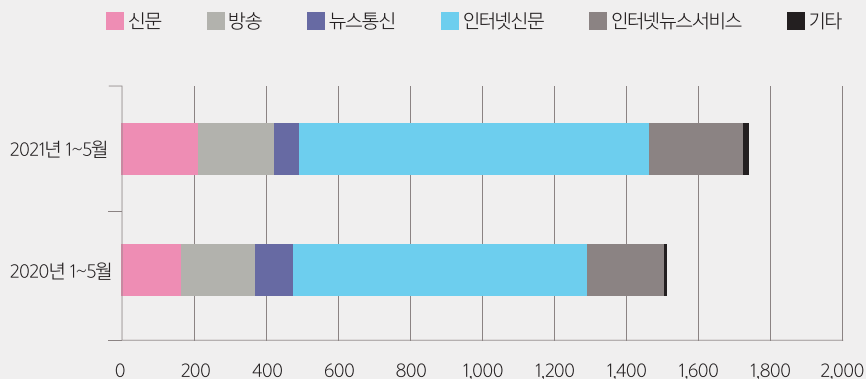
정제훈(전북중재부·법무법인 호림 변호사)위원은 6월 11일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기총회에서 감사에 선임됐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 및 가족, 유족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경희 위원, ‘포스트코로나 시대, EBS의 새로운 가치체계 확립과 대응방안’ 토론 참석

김경희 위원(강원중재부·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은 6월 12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1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EBS의 새로운 가치체계 확립과 대응방안’ 주제 세션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는 교육공영방송사로서 EBS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재위원 사퇴

최미화(대구중재부·전 매일신문 논설실장)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2021. 5. 31. 중재위원직을 사퇴했다.



기사의 행간을 읽어야 하던 시절이 있었다. 박정희 유신체제 아래 억압적 통치가 극에 달했는데, 언론이라고 압제의 광풍을 비켜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란 해괴한 통치행위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우선했다.

정보기관원들이 언론사 편집국을 제집처럼 드나들었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걸러냈다. 언론이 딱 막혀 숨쉬기조차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자들은 기사의 행간에 진실을 담기 위해 머리를 짜냈다. 독자들 또한 그것을 용케 알아보고 장막에 가려진 세상을 읽었다.

그런데 요즘은 행간을 살피는 대신 기사의 이면에 숨어 있는 프레임이라는 뒤통을 잘 살펴봐야 한다. 한때 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던 언론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프레임 전쟁에 동원되거나 스스로 프레임을 짜는 일이 허다해졌다. 사실 보도보다 정파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앞세운 언론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독자들은 신뢰를 거둬들였다. 과거 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 때 일이다.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공작을 펼치던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봉쇄를 했다. 여당은 연약한 여성을 감금한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일부 언론들 역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를 인권침해라는 프레임으로 덮었다.

이처럼 프레임은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호도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면 굵직한 사건, 사고마다 이러한 프레임들이 지뢰처럼 깔려 작동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거철에는 정치권의 프레임 전략이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정도로 프레임이 남발되고 언론은 장단을 맞춰왔다.

프레임 전쟁은 해방공간에서 첫 포문을 열었다. 세계대전 후 일제로부터 독립된 한반도의 미래가 나라 안팎의 관심을 받던 때였다. 그런 시기에 동아일보는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소련은 신탁통

치 주장'이란 큼직한 제목의 기사를 내놓는다. 당장 임시정부 요인들부터 강렬하게 반발하는 등 해방정국을 뒤흔들었다. 문제는 그것이 가짜뉴스라는 데 있다. 실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은 30년 신탁통치를 주장하고 소련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가짜뉴스의 파장은 견잡을 수 없이 커졌고, 우익세력과 언론은 교묘한 프레임 전쟁을 전개했다. '최장 5년 신탁통치,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골자로 한 삼상회의 결정이 공개된다. 좌익과 중도파는 임시정부 수립을 천명한 삼상회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우익과 보수언론들은 '반탁 애국 대 찬탁 매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뉴스까지 조작하며 좌익을 공격하는 여론몰이를 한다.

여기에 친일세력이 반탁운동에 가세하면서 해방정국의 판도는 '찬탁 반민족 대 반탁 민족'으로 굳혀진다. 해방 직후 '민족 독립운동 대 반민족 친일파'의 구도가 왜곡돼 버린 것이다. 친일세력이 반탁 대열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애국자 연기를 했고,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 좌익과 중도파는 매국적 집단으로 매도됐다.

혹자는 해방정국의 찬탁 대 반탁 프레임전쟁이 일제 잔재 청산을 물 건너가게 만들고, 분단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의 가짜뉴스 보도 뒤 해방공간의 정치 지형은 찬탁 대 반탁으로 갈라지면서 좌우의 전선이 뚜렷해진다.

해방공간의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프레임전쟁이 좌우의 갈등을 유발했고, 그 질긴 뿌리의 악연은 한국판 매카시즘을 연출하면서 현대사를 얼룩지게 만들었다.

큰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다. 또 어떤 프레임이 우리의 판단을 시험에 들게 할지 모른다. 프레임의 뒤통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나름의 잣대'를 마련해야 될 일이다.

프 레 임 전 쟁

키 워 드 로 보 는 4 0 년 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역할, 기능 등을 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언론중재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언론중재법은 매체별로 각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포괄·통합하는 단일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제정으로 조정·중재 대상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언론피해구제의 범위와 방법이 크게 확대되기도 했지요.

2009년에는 포털·언론사닷컴·IPTV 등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40년간 매체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언론보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더 많은 언론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